

작은 악마, 담배

임재현
부천 소사초등학교 3학년 2반

우리집 공기는 언제나 상큼하다. 우리 아빠께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다. 그 이유는 아빠께서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호기심에 한 모금 피운 담배 연기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고 하셨다. 그때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으셔서 그 이후로는 담배를 입에 대지 않으셨다는 우리 아빠. 한 번의 호된 경험으로 아빠께서는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은 늘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한다.


그런데 우리 외삼촌께서는 담배를 피우시다 담배 때문에 예쁜 딸의 눈을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다. 외삼촌께서는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고 한다. 전화가 와서 외삼촌께서 피우고 계셨던 담배를 왼손에 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통화하고 계셨는데, 그때 외삼촌의 딸 민지가 아빠에게 안기다가 하필 담배 있는 쪽으로 달려와 그만 담배가 민지의 바로 눈앞에 닿았다. 그 순간 민지는 뜨겁고 아파서 데굴데굴 굴러다고 한다.

외삼촌과 외숙모께서는 너무 놀라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셨다고 한다. 다행히 민지는 눈은 안 다쳤고 눈 바로 옆에 담뱃불 자국이 생겨서 얼굴을 볼 때마다 온 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이라고 하신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외삼촌께서는 바로 담배를 끊으셨다.

우리에게 항상 밝은 웃음을 전해주시던 이주일 아저씨께서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셔서 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한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학교에서도 비디오와 사진을 보며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이 해로운지를 공부한 적이 있다. 그때 선생님께서 주신 사진을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무섭다며 자세히 못 보시는 것이다. 내가 봐도 정말 끔찍한 폐의 모습이었다.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을 비롯해 오백여 가지의 물질이 들어있다고 한다. 내가 알아듣기에는 어려웠지만 몸에 해롭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어린이인 나도 몸에 얼마나 많이 해로운 지를 하는데 어른들은 왜 모르는 것일까. 알면서도 중독이 되서 금연을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몸에 해롭지 않은 건강 담배를 만들어서 피우면 될텐데 건강 담배는 만들 수 없는 것일까. 왜 누렁지 처럼 구수하고 연기도 많지 않고 향기로운 연기를 내는 건강 담배를 개발하면 될텐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건강 담배를 만들어 보아야겠다.

여러분! 담배는 작은 악마예요. 이 악마를 우리 곁에 둘 순 없잖아요. 이 작은 악마를 금연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담배 피우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금연운동에 동참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람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폐랍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지 아세요?

저는 우리의 몸에 좋은 산소를 주고 나쁜 산소를 밖으로 내뿜는 일을 한답니다. 물론 심장과도 친구입니다. 가끔씩 심장과 인사도 나누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우리 몸에서 좋은 산소는 매우 중요하지요. 숨을 쉬면 내 속으로 들어간 공기 중 산소는 공기주머니 다발의 바깥 혈관속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혈관밖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즉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바꾸는 중요한 일을 한답니다. 저는 아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윗부분이 뾰족한 고깔 모양이고 스폰지처럼 탄력이 있고, 친한 친구인 심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한 개씩 있지요. 저는 참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이런 일을 잘하겠지요? 점점 저의 몸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원인은 매연가스, 공장매연 등으로 공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도시지역은 제가 살기에는 아주 힘들어 지고 있지요. 저는 좋은 공기를 좋아하는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면

“아이 시원해라. 속이 땀 뚫리네. 역시 좋은 공기는 최고야!” 하지만 요새는 좋은 공기 마시기가 힘들어져서 매일 똑같은 생각도 하고, 몸도 점점 약해집니다.

‘좋은 공기 속에서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생겼지요. 사람들이 심심해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재미로 피우는 저의 최고의 적입니다. 담배로 인하여 나도 힘들어 지고 마약처럼 습관적으로 피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나는 허약해 저서 죽어요. 죽음을 부르는 연기라고들 하면서도 어른들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저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구요? 그 이유는 코미디 황제 이주일 아저씨가 폐암으로 “담배 많이 피우면 저처럼 되요.”라고 하며 야구해설가 하일성 아저씨도 심근경색이라는 병으로 “끊으세요. 진심입니다.”라고 하며 저의 편을 들어주니까요.

어른들은 모두 마음을 바꾸어서 담배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주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가 건강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모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꿈이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 담배를 피우지 말고 제가 건강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나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담배가 싫어요

김주환
서울 중화초등학교 4학년 9번

“이 암!”, “야!”, “모두들 힘있게 외치는 고향 소리와 절도 있는 움직임에 따른 도복 펄럭이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저녁 마지막 수련 시간이어서 중·고등학교 형들이 대부분인데 유난히 나이 먹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분은 내 태권도 후배이면서 도장을 함께 다니는 친구인, 나의 아버지입니다. 매일 바쁘고 피곤하신 우리 아빠. 술과 담배에 늘 젖어 계시던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엄마의 잔소리로

“아빠를 미워할거야.”라는 협박에도 끄떡없으시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금연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루 두 갑씩 담배를 피우시던 할아버지께서 후두암으로 쓰러지고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즐기시던 담배를 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사실에 기쁘고 반갑게 받아들였지만 아빠는 힘든 시간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물레 피울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감시하는 가족들의 눈치 속에서 아빠는 꾀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아빠의 몸 속에 자리잡고 있던 니코틴의 부스러기들은 아빠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심심해진 손과 입은 수 없는 간식거리를 바닥내고도 부족해서 담배 피우는 흥내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담배 냄새라도 나면 아빠의 코는 코끼리 코처럼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은 회의를 했습니다. “아빠를 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드리자.”고 모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간식대신 몸에 좋다는 차를 드시고, 담배 피우시면서 신문 보시던 저녁 시간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3품을 준비하며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있던 중이어서 함께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바 말씀이 대한민국 육군은 모두 태권도 2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검은 띠를 빌려주신 것을…….

땀으로 흠뻑 젖은 아바와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오며 한번 뜻을 세우신 것은 끝까지 이루어 내실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든든하게 잡아주신 아빠의 손을 통해 순간의 즐거움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사랑해요!” 

아빠의 트로피

이상협
서울 당중초등학교 4학년 2번